



3면

"이원택의 빈자리, 강은호가 이어받아야"

# 전주매일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음 3월 14일) 제39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새만금, 균형발전 1번 타자”

김윤덕 국토부장관 “현 정부 성과 가를 핵심사업” 규정  
전북 소외 원인에 “정치권에도 책임… 아젠다 바뀌어야”  
새만금개발청 찾아 개발 전략 재정립 상황 점검 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이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설명을 넘어 전북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자리였다. 김 장관은 먼저 전북의 발전이 더뎠던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구조적 한계가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먼저 전북의 발전이 더뎠던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구조적 한계가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전북은 그 가운데서도 광역시라는 중심 거점이 없어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인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족도 함께 언급했다. 균형 발전 해법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북은 그동안 메가시티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로 속도가 나지 못했다”며 “이제는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 축을 갖는 방향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을 계속 호남권이라는 틀에만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북 자체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를 균형 발전 정책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6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며 철도망 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 계획, 국토균형발전 계획, 물류·항공 정책 등 주요 국가 인프라 계획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되며, 이 모든 계획의 초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을 옮기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를 균형 발전 정책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6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며 철도망 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 계획, 국토균형발전 계획, 물류·항공 정책 등 주요 국가 인프라 계획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되며, 이 모든 계획의 초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을 옮기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를 균형 발전 정책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6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며 철도망 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 계획, 국토균형발전 계획, 물류·항공 정책 등 주요 국가 인프라 계획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되며, 이 모든 계획의 초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을 옮기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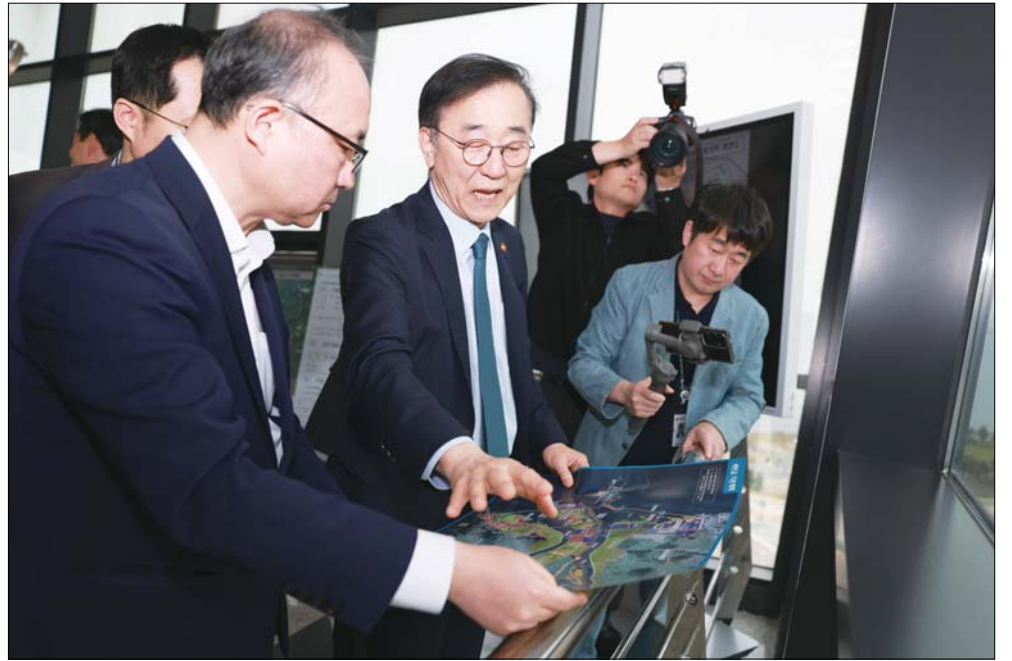
김 장관은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이후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은 이미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대차 투자 등 민간 참여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부분은 해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이후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은 이미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대차 투자 등 민간 참여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부분은 해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기관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청장은 정무적 판단 능력, 차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 기간 동안에는 장관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이후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은 이미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대차 투자 등 민간 참여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부분은 해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기관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청장은 정무적 판단 능력, 차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 기간 동안에는 장관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이후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은 이미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대차 투자 등 민간 참여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부분은 해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기관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청장은 정무적 판단 능력, 차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 기간 동안에는 장관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이후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은 이미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대차 투자 등 민간 참여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부분은 해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기관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청장은 정무적 판단 능력, 차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 기간 동안에는 장관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프라 개발 현황과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을 계기로 한 새만금 개발 전략 재정립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우린 늘 선을 넘지”...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

내달 8일까지 열흘간의 영화 나들이... 54개국 237편 상영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상영... 개막 전 시사회 열여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영화 나들이에 들어갔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은 배우 신현준과 고원화가 개막식 사회를 맡고, 레드 카펫에는 국내의 감독과 배우들이 대거 참석했다. 올해 영화제에는 54개국 237편의 다양한 영화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CGV 전주교사, 메가박스 전주객사,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등 시내 주요 상영관에서 상영된다. 개막작은 전직 시인인 주인공을 통해 예술가들의 삶의 허영과 두려움을 드러낸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이다. 이날 오후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열린 ‘나의 사적인 예술가(Late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영화 나들이에 들어갔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은 배우 신현준과 고원화가 개막식 사회를 맡고, 레드 카펫에는 국내의 감독과 배우들이 대거 참석했다. 올해 영화제에는 54개국 237편의 다양한 영화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CGV 전주교사, 메가박스 전주객사,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등 시내 주요 상영관에서 상영된다. 개막작은 전직 시인인 주인공을 통해 예술가들의 삶의 허영과 두려움을 드러낸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이다. 이날 오후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열린 ‘나의 사적인 예술가(Late

아쩌면 다시 팬을 잡아 시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끝내 주인공이 마주한 현실과 꿈꿔왔던 이상과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끼는 과정은 필름으로 담았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슈퍼미미오 갤러리 in 전주 △영화 포스터 전시 100 Films 100 Posters △2026 전주X미중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전이 마련돼 있다. 또한, 올해 초 타계한 故 안성기 배우의 영화 세계를 되돌아보는 ‘특별전: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도 마련돼 그간 전주와 인연이 많았던 안성기 배우의 작품들을 만나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어온 안성기 배우를 함께 추억하는 시간도 제공된다. 한편,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8일까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긴 겨울밤 등빛날에 ‘동지(冬至)’가 된 사람들의 12.3 내한 이야기를 다룬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 이 페막으로’ 상영된다. /김재훈 기자

## 도, 106만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

투기 우려 해소 위해... 지역 주민 조사원 200여명도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조사에 참여할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전매와 투기 우려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

과 정리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도는 지역 여건에 밝은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해 주민 참여형 조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원 모집은 4~5월 시군별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5월 1일 노동절 · 5월 5일 어린이날로 인한 연휴에 따라 신문은 6일 발행합니다.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